

성보화학(주) 연구소

풍요로운 농촌 위한 '농업 과학' 실현에 진력

1987년 4월 출범 불구, 국내 최초 신농약 '선봉' 탄생시킨 업적 지녀
연구여건 우수 '종합적 접근' 가능, 해비치·세시미·반빨 등 우수제품 많아



풍요시대를 살아가는 세인들은 식량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목전의 이익과 단편적 편의만을 향유하며 비상시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저 '황금 알 낳는 거위' 라도 잡아먹고 싶은 생각뿐인 듯싶다. 그래서인지 '거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현재로선 마이동풍이다. 결국 먹을알이 없을 즈음이면 많이 늦은 시기일지도 모른다.

정밀화학제품인 농약의 개발과정 및 안전성을 홍보함으로써 올바른 인식을 제공코자 마련한 여덟 번째의 장(場). 인근의 생산 기술 연구소 및 산업기술대학, 안산 테크노파크와의 협동 및 정보교환 등이 용이한 안산에 자리하고 있는 화학·잔류안전성연구소, 김포평야와 한강을 굽어보는 고양시에 위치한 생물연구소로 구분되어져 공업생산 및 농업적 시설의 분위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을 듬뿍 지니고 있는 성보화학(주) 연구소(소장 趙富衍)를 찾았다.

국내 최초 신농약 '선봉' 탄생 쾌거 지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식량의 중요성 홍보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웰빙문화는 절대 부족의 식량 생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 가지는 식량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까우며 유기농, 무농약 농, 오리농 등의 확대정책은 먹거리 총량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약=독' 인식은 크게 잘못된 것이며 '농약=아주 경제적 독' 인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식량난 해소를 위한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국산 신농약 1호 탄생의 주역인 趙소장은 '농약생산의 철학'도 회사에 귀속되어선 안 되며 자신과 후손을 위한 식량생산 쪽에 맞추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하고 "사실상 농약 없는 농사는 가능하지 않은 만큼 저약량 고효율의 제품개발이 필수적"이라며 해결안을 제시했다.



1987년 4월에 출발한 성보화학(주) 연구소는 회사 연륜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출범 10여년이 채 되지 않은 1996년 1월 어엿한 국내 최초 신농약 “선봉”을 탄생시키는 쾌거를 이루어 낸 자랑스런 업적을 지니고 있다. 趙소장은 그런 측면에서 “성보화학은 앞서나가는 개척적인 회사이며 경영진의 사고가 유연해 규모에 비해 많은 장점을 지닌 회사”라며 자랑스러워한다.

이화학분석 시험 연구기관으로 인증 받은 분석실을 비롯, 잔류성 시험연구기관인 농약 안전성 실험실, 역가 검사 및 약효·약해 시험연구기관인 생물실험실과 60여명의 완전자동 전천후 온실, 300여평의 비닐온실, 3,000평의 시험포장 및 과수목 재배 등의 시험포를 갖추고 있으며 모두 24명의 연구원들이 풍요로운 농촌을 위한 농업 과학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또 농약 원제 생산의 국산화 및 정밀화학 제품 개발에 앞장서온 성보화학 연구소는 국산 1호 신규 살충제인 플루피라조포스(선봉)를 비롯, 환경친화적 제제 및 Xylene 사용의 축소에 따른 WG, SE, SC, GR

계통 제제 개발 등 신규 농약원제 및 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열병 및 잎짚무늬마름병, 벼물바구니 등에 효과가 우수한 혼합제와 수도용 제초제 등이 올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해비치·세시미·그린가드·내노내 등 준비

趙소장은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물질 개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선봉’을 탄생시킨데 대한 자부심이 줄지 않았다는 듯 배경과 우여곡절, 주변인들에 대한 감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아쉬움 등 감회를 술회했다. 그러면서 “시장 니즈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품생산이 가능하다. 저약량·높은 선택성은 선봉이 지닌 최대 장점이며 현재도 학문적으로는 갈망하고 있다”며 작지 않은 아쉬움을 표하고는 주요제품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총 96품목 중 76개 정도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주력제품으로는 저항성 병해에 유효한 ‘해비치’를 비롯, 세균전문약제로 특히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효과적인 ‘성보싸이클린’, 저약량 넓은 해충방제의 ‘세시미’, 소나무 재선충 방제제인 ‘그린가드’, SU계의 합제인 ‘내노내’, 잔디·화분과 목초지의 잡관목 살목용 ‘반벨’ 등 우수제품이 적지 않다.

지식과 지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영감을 현실로 구체화할 수 있는 적극성은 연구원으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말하는 趙소장은 타 연구소와의 차별화를 묻는 질문에 “원제 합성부터 약효·약해, 사용법 개발, 제제연



